
2021년 제3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7. 23. ~ 7. 2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7. 23.	시청률	0.096

【총 평】

‘해수욕장 방역 문제점’과 ‘전동킥보드 안전모 의무화 외면’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현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여 캠페인 효과를 유발하는 아이템이 탁월했다. 특히 ‘무상수리기간 1년, 소비자 불만 많아’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부품에 맞는 기간 정해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피해구제 방법을 제공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를 다룬 다문화 리포트는 열악한 외국인에 봉사하는 의료진의 보람과 외국인 노동자의 감사가 제대로 표현돼 감동으로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 해수욕장 방역 대폭 강화 "마스크 꼭 쓰세요.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피서용품 대여 시에도 체온체크 및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해수욕장 혼잡도를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신호등과 사전예약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사고 급증 속 전동킥보드 '안전모 의무화' 외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안전모 의무화’ 이후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쉽게 목격된다. 의무화 이후 미준수 사례가 1,765건이나 적발되었다. 특히 안전모 대여제와 ‘안전모 의무화’ 취지를 소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 새벽 배송에 해외 직구까지 '5060 온라인쇼핑' 주목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비대면 쇼핑현상의 원인과 이점 등을 언급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다룬 점이 돋보였다. 간편결제로 접근이 쉬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중년이 증가하며, 물건, 식품구매, 여행예약도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 무상수리기간 1년, 소비자 불만 많아
가전제품 A/S에 있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나는 경우 유상으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상수리기간이 소비자에 따라 1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제품과 부품의 특성에 맞는 무상수리기간의 개선점을 제시한 구성이 탁월했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무료 의료 봉사' 진행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 봉사 행사가 진행되었다. 혈압부터 스케일링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약까지 제공한다. 천안시 의료진이 참여하며, 증상이 심하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도와주며, 지난 2년간 1,800여 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 신안섬에 '애기범부채꽃' 3천만 송이 활짝
전남 신안의 압해도에서는 애기범부채꽃이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3,000여 송이의 국내 최대 애기범부채꽃 군락지로서 60cm 넘는 잎이 두 줄로 부챗살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7. 23.	시청률	0.331

【총 평】

‘경제&이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반기 수출 동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565억 달러 규모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 20개 중에서 19개 품목이 증가했는데,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전 품목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했다. 온라인 수출 증가 동향을 짚어주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수출의 증가는 국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 및 내용】

미국 등 코로나 19 델타 변이로 다시 창궐한 주요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소식과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 및 도쿄 올림픽에 관련된 코로나19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해 주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던 전 세계에 갑자기 델타, 람다 등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확산세가 심각하며 미국, 인도, 브라질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보면 접종을 받은 주에서는 중증 환자나 사망 사례가 훨씬 적다고 하니 희망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동향으로 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565억 달러 규모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결과이며 코로나 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증가한 수치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다. 2021년 상반기 565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 금액은 웬만한 나라의 전체 수출액보다 큰 수치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교해서 보아도 더 높은 액수이다. 하지만 금액의 증가가 수출량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단가를 고려했을 때에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20개 중에서 19개 품목이 증가하며, 전 품목이 균형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뜻이다. 의약품 성장률은 2배 이상 성장. 그 외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수출 증가 품목들이다. 특히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과 현황을 그래픽으로 전달되었는데, 코로나19 초기 부진을 보였던 화장품 품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괄목할 만했다.

주요 10개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었다. 독일에 대한 수출 증가가 폭발적이었고, 진단키트, 가공 의약품등,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수출 증가대상국들이다. 대미수출은 15% 증가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온라인 수출 동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한류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석해 주었고,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7. 23.	시청률	0.202

【총 평】

‘여름 향기를 품다 - 경기도 가평’편은 주말을 이용해 친구나 연인, 가족이 예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과 남이섬의 폭포 소리, 계곡 물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담았다.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과 명지산 등 5대 명산과 청평호, 가평천 등의 너른 호수가 있는 가평은 사시사철 인기 여행지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약 5천여 종의 보유식물과 한국식 정원 형태로 만들어져, 정원 이름도 고향집 정원, 허브정원, 석정원, 하늘정원 등 한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감각적인 영상미, 그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품격 있게 전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산과 계곡, 강바람과 숲 그늘이 있는 가평, 가평 여름 여행의 시작인 아침고요수목원을 소리를 소개했다. 아침고요라는 이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예찬한데서 비롯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동양적 신비감, 한민족의 고고한 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침고요수목원의 아침광장, 하경정원, 고향집정원, 야생화정원, 침엽수정원, 비밀의정원 등 각 정원마다 우리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인 곡선과 여백, 비대칭의 균형미를 담아 고전의 우아함과 멋스러움이 묻어났다. 특히 곡선과 비대칭이 조화롭게 펼쳐진 한국 정원의 모습과 탑골 정원의 돌탑 풍경도 의미 있었다. 고풍스러운 정자와 다양한 수종식물이 있는 서화연, 그리고 작은 폭포, 연꽃.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다. 함박꽃처럼 탐스럽게 피어 있는 수국들이 가지가지의 색깔로 장관을 이루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복잡했던 머릿속을 쉬어가자는 고풍스러운 정자와 연꽃, 수국, 천년향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었다. 아침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향은 천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고고한 기운이 느껴진다. 천년된 향나무라 붙여진 이름인 천년향은 안동에서 옮겨왔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는 커플이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평화로움이 아름답게 연출되었다.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묵은 가지를 정리하는 가지치기 소리는 사람의 손길로 나무의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세균의 피해를 막는 소리임을 생동감 있었고, 특히 "눈과 귀 발끝에 계곡의 서늘함을 담다", "처마는 그늘이 되고 대청마루는 쉼터가 되는 곳", "다채로운 색감으로 전하는 꽃의 언어" 등 시적인 자막은 풍경과 자연의 소리의 여운을 남겨주는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7. 24.	시청률	0.163

【총 평】

‘우리는 어쩌다? 별안간 나주’편은 80년 지난 고택을 사들여 복원한 뒤 숙박, 카페,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켜 지역문화마당으로 활용하는 귀촌 5년차 40대 부부의 이색적인 스토리를 담아 흡인력을 높였다. 시골집 한 채에 부부의 인생이 바뀐 ‘고택과 사랑에 빠진 부부’의 인생 스토리라는 이색 소재가 관심을 유발했다.

특히 80년이 넘은 고택 ‘목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방치된 지역의 고가도 손질하면 지역관광 명소가 될 수 있고 지역문화마당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운치있는 고택의 정취와 그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5년차 귀촌 부부의 일상과 소확행을 통해 삶의 질과 힐링을 일깨워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집보다 한참이나 젊은 부부라고 소개하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부부는 생활과 집을 쉽이라고 표현했는데, 5년 전 우연히 나주에 왔다가 마음에 들었던 시골집 한 채를 구입하며 인생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1039년의 지어진 집을 2017년에 부부가 만났고, 7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부부는 흔쾌히 마주했다며 부부에게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보였다고 전했고, 시간의 보물을 만난 느낌으로 최대한 원형 그대로로 남겼다. 특히 비가 내렸을 때 배수구를 뚫고 다니는 집 관리의 수고를 전하며, 귀촌하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백년된 고목이 있는 옛날 시골집 마당 풍경 그대로 우물과 펌프의 모습도 정겹고 도심에서 보기 힘든 오래된 돌, 토굴, 나무 등 시골이 주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생생한 시골의 풍경모습이 관심을 유도했다.

부부는 나주 향교 근처에 위치한 고택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수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보존과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고택 곳곳에 남아 있는 옛날의 흔적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그 가치를 함께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주의 청년기획자들을 불러들여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부부는 옛것을 지켜나가며 문화를 덧입혀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에 최근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처음 귀촌 이후 매년 1채씩을 보수하며 현재는 총 7채의 한옥을 보수하고 완비했다. 본채부터 카페, 공연 등을 위한 건물들이다. 특히 나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내는 나주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에 힘을 쏟았다. 부부는 지금도 지역활 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중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7. 25.	시청률	0.109

【총 평】

‘친북’에서는 극심한 폭염과 식량난에도 코로나19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한 채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전해주었다. 북한의 기록적인 폭염 소식을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의 비상방역 체계, 기록적인 폭염, 어려운 전력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심각했다. ‘이슈 텔링’은 올림픽 경기를 통해 본 남북 평화의 길을 살펴보았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보여줬던 성과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과거 스포츠 교류 사례를 되짚어 봄으로써 스포츠가 갖는 화합의 힘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구성 및 내용】

친절한 한반도 시사 토크에서는 휴가철, 극심한 폭염? 식량난에도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 가동 중인 북한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북한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WHO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3만 3천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감염자는 아직도 제로라며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일하러 간 북한 주민 500명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7개월째 북한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감염의 공포 때문에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 온 비둘기 한 마리로 인해 3개 군을 고립시킨 사례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식 에너지음료 만드는 방법과 폭염에 대비하는 민간요법과 지혈법 등을 소개했다. 현재 북한의 입장으로는 방역과 폭염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냉방 시설 설치는 미비하고, 물놀이 장소 유원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만 하고 있는듯하다. 북한에서 인기있는 피서지인 평양 문수물놀이장과 함경남도 마전해수욕장이 폐쇄됐다는 소식과 전력난 때문에 집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도 틀기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이슈 텔링에서는 ‘스포츠로 통하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 본 남북 평화의 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북한 선수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사격의 리호준 선수, 도마의 신 리세광 선수, 식량난으로 힘들 때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유도계 계순희 선수 등을 소개했다. 1960년대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세운 신금단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남한의 아버지를 일본에서 상봉했는데 지금과는 다른 남북 관계의 기류 탓에 겨우 7분간의 상봉만 가능했으며 서로가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했다. 우리는 올림픽에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7. 25.	시청률	0.132

【총 평】

신혼부부 주택자금 마련 혜택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령자 건강지원 등 정부의 역점 시책과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정보가 상세히 다뤄져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결혼 기피현상에다 주원인인 내집 마련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을 지원하기위한 주택자금 마련 정책은 유익한 소재였다.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고령자의 건강 지원 정책정보도 유용했고, 노인건강 지원 총정리가 눈길을 끌었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소개하는 도입부에서 결혼 축하금 천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라이프를 공모하는 전북 김제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어르신들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사례로 피아노 연주와 방구석 노래방을 구성한 복지관 유튜브를 소개해 관심을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신혼부부 주택자금 마련 혜택’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령자 건강지원’을 각각 전해주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마련 혜택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서비스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소개했다. 고령자 건강지원 혜택에 있어서는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과 더불어 노인 대상 안과 정밀검진과 개안수술 지원사업,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전북 김제시에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마련한 웨딩라이프 행복수기 공모전을 소개했는데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높았다. 비혼과 만혼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으로 인해 더욱 행복해진 가족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주택 취득세 감면 등 결혼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전북 김제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7월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만기 40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광열비 등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비용이 고민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대출상품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령자 건강지원 사업으로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통증과 수술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 정밀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한다. 노인 틀니 지원사업과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키워드&트렌드는 고령화 국가순위를 다루었는데, 평균연령 36세 국가가 고령화국가이다. 미국은 37.4세로 38위이며 한국의 경우 41.8세로 12위를 기록했다. 1위 국가는 평균연령 45.9세인 일본이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7. 25.	시청률	0.051

【총 평】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위상,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인 사례 등 다양한 접근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한국판 뉴딜로의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저탄소 등의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임을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교통, 에너지, 스마트한 빌딩, 안전, 재난재해예방 경보시스템 등이 필수 요건이다.

이상적인 스마트시티는 따뜻한 기술과 생활 밀착형 기술이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치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어 다양한 사고를 도출해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다양한데 도시를 관리 운영할 때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는 것, 도심의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 기술과 디지털 정보통신이 만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면 스마트 시티이다. 현재 우리는 여러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시켜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스마트시티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 중앙시장의 주차문제 해결, 소방서 드론, 전기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주민들의 일상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을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현장을 소개했다. 특히 노후된 전기 상태를 안전한 전기 상태로 바꾸어 상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유성소방서는 무인 드론 안전망 서비스로 효율적인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스마트시티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인프라 위에 다양한 실험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미 구축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부탄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과 기술을 수출하고, 베트남 메콩강 델타지역에 물관리기술과 한국의 ICT기술을 융합시켜 한국의 스마트시티 위상을 보여주었다.

인천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 이를 활용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기술로 횡단보도 바닥에 LED신호등을 설치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인천스마트그린산단(노후화된 남동산단을 통합운영센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구축했다. 또 스마트시티 핵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기업을 소개했다. 자율주행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가 큰 분야이고 기반 시설이나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주어 공감하는 구성이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7. 25.	시청률	0.157

【총 평】

‘코로나19 재확산, 현장을 가다’편에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현장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운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움츠려든 여행업계와 자영업자의 현 상황을 들여다본 구성이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또 경로당, 가정, 여의도 한강공원 등 현장 점검에서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도감을 갖게 했다. ‘희망과 두려움의 공존’인 현 상황을 ‘생존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투철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메시지가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7월 들어 장마와 여름햇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와 재유행하며 신규확진자수가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현장을 가다’편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을 회복해 가는 시민들과 기업체를 조명하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자영업자를 나누어 조명하고, 마지막에 시민들 인터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기획이 돋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휴관 된 경로당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개관했다. 지자체 등의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고, 경로당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해오다 백신접종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있다. 특히 완화된 거리두기,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경로당, 여행사, 육아로 지친 젊은 엄마를 통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조명한 구성이 돋보였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며 일일 10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선별진료소를 찾는 검사 대상자들이 많아지고 의료진들 또한 덩달아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의 4단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다시 격상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수반한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 협동으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자영업, 시민들의 모습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명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통령이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시하는 모습 등이 정책홍보 역할을 했으며, 경로당, 여행업계, 주부, 선별진료소, 자영업, 한강공원 현장 점검 등 다양한 구성이 돋보였다.